

# 철학사

## 41 존 로크

###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저)

자, 이제 계몽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계몽주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특징짓고, 그에 따라 로크를 계몽주의의 대표자, 그리고 여러 면에서 철학적 계몽주의의 시작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철학적 계몽주의의 시작은 때때로 로크의 인간 이해에 관한 에세이가 출판된 1691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계몽주의라는 용어는 물론 이성의 빛을 의미하는데, 이 맥락에서 이성은 과학적 지식의 빛, 즉 귀납적이든 연역적이든 객관적인 과학적 방법을 통해 얻은 지식의 빛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당시 과학이 주장했던 객관성과 결론성을 갖춘 지식 말입니다.

테니슨의 시 구절, "신이 말씀하시기를 뉴턴이 존재하게 하라 하시니 모든 것이 빛이 되었다"를 기억하시죠? 뉴턴이 과학의 빛이 아니라면 왜 굳이 그를 선택했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시 계몽주의는 이성을 강조하며 전통과 권위에 회의적이었고, 계시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몽주의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이 계시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오히려 부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만으로 아는 것에 더해지는 무언가. 나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근본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덧붙여지는 것에 가깝다. 이 시대는 교조적인 체계에 매우 반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와 같은 주요 체계 구축자들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사람들보다 17세기 사람들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한 체계 구축자들은 과학적 수단만으로는 확립될 수 없는 일종의 체계적인 지식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데카르트에게서조차, 아니, 당신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데카르트의 증명에서조차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증명은 애초에 의도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비판의 시대이며, 그러한 지식의 가능성 자체를 비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계몽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이 내면으로 향하게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계몽주의의 의 주장 과 과학적 지식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흄에 이르러서는 그가 진정한 철학적 회의론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계몽주의적 지식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지식의 가능성 자체에 회의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정당화되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독단적인 종류의 지식과는 구별됩니다. 데이비드 흄만이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볼테르 같은 인물이나 프랑스의 '철학자들'로 알려진 집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프랑스어 원어인 '철학자들'은 여전히 '철학자들'을 의미하지만, 다른 철학자들과 구별하기 위해 영어권에서는 보통 프랑스어 용어인 'philosoph'로 부릅니다. 그들은 지식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철학적 집단입니다.

지금은 이성의 빛 시대일 뿐만 아니라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고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다른 인과적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충동, 즉 감정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에이비스처럼 무언가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열정적이죠. 하지만 당신은 그걸 놓쳤군요. 에이비스 광고 아시죠? 우리는 열정적입니다.

에이비스가 그런 식으로 광고하는 걸 그만뒀나요? 죄송해요, 바뀌야겠네요. 자, 감정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행동이 아니라 강박에 사로잡힌 행동입니다. 한 발짝 물러나서 자신이 하는 행동을 생각해 보고, 감정적인 충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아시 겠죠?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원칙 아래에서는 자유가 가능한 겁니다. 정치에서 흔히 말하듯이, 법치주의 아래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없는 곳에서는 불가능하죠.

위해서는 강박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자 하는 윤리 이론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선(善)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최고의 선, 즉 신을 추구하며 지향하는 이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에는 윤리가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원칙과 규칙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학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윤리적 기준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이론들이 발전했던 시대였습니다. 존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강조했고, 그 밖에도 프랑스 정치 유산의 토대가 된 여러 권리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정치적 유산이죠. 우리의 정치 체제는 본질적으로 계몽주의의 산물입니다. 아주 그렇습니다.

법치주의는 이성의 지배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성의 빛에 대한 회의론, 즉 이성주의의 거부에 대한 반발은 19세기 초 낭만주의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낭만주의는 감정의 자유로 회귀합니다. 창조적 천재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이상화합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르네상스 시대에 정치적 자유가 강조되면서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점차 절대화되고 이상화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아시다시피, 계몽주의 시대의 개인 권리, 낭만주의 시대의 창조적 자기표현, 그리고 사르트르 같은 실존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절대적 자유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이해되지 않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미국 정신에는 자유를 모든 가치 중 최고로 여기는 무언가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세계는 그것이 매우 이교적인 생각처럼 보입니다.

유대-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장 고귀한 사회적 가치는 자유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자유는 정의의 하위 개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의 보다는 자유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계몽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존 로크가 바로 그 계몽주의 정신에 아주 잘 부합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사상에는 다른 영향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는 계몽주의 정신을 깊이 새기고 있었고, 과학 시대의 한 축을 담당했으며, 아이작 뉴턴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었습니다. 그는 뉴턴의 물질 입자 모델을 받아들여 자신의 관념론과 사회 철학에 적용했는데, 이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물리적 우주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물질 입자, 즉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원자들은 고정된 법칙에 따라 결합하고 움직이며, 단순한 관념들을 형성합니다.

정해진 결사 법칙에 따라 결합됩니다. 그의 사회 철학에서는 사회적 원자, 즉 개인들이 사회 계약의 법칙에 따라 결합된다고 봅니다. 네.

물리학, 심리학, 인식론, 사회 철학에서 가졌던 것과 동일한 원자론적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청교도적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7세기 반종교개혁 시대의 고전적인 장로교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서명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선택한 로크의 글의 첫 단락만 봐도 알 수 있죠. 로크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카우프만 선집을 살펴보죠

그 글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의 이해에 관한 에세이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해에 대한 탐구는 즐겁고 유익한 일입니다.

인간을 다른 감각적 존재, 의식적 존재들보다 우월하게 만들고 그들에 대한 모든 이점과 지배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해력이기 때문에, 이는 그 고귀함 때문에라도 우리가 탐구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별 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 그리스인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계몽주의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 뭐라고 말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바로 이 점이 그에게 자연의 나머지 부분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개혁주의에는 창조에 대한 강조가 있었죠. 베이컨과 홉스에게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문단 말미에서 그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빛을 들여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가볍고 흥미로운 비유적 표현, 바로 이성의 빛입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상단에서 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의견과 지식 사이의 경계를 찾는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의견과 지식 사이의 경계 말입니다.

그건 플라톤이 계몽주의에 도입하고 재해석한 오래된 구분법입니다. 지식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확실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견은 그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을 통해 그는 우리가 동의하는 것을 조절하고 설득력을 절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동의 할지, 무엇을 믿을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성애 따라 동의하거나 반대할 자유, 믿거나 믿지 않을 자유가 완전히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165쪽 두 번째 열에 '개념'이라는 용어(따옴표 안에 있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락 중간쯤에 그는 '개념'이란 인간이 생각할 때 이해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관념이죠. 관념.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가 출발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자신의 관념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데카르트에게 그랬듯이 로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은 오직 우리의 생각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체, 다른 정신, 신과 같은 외부적인 것들에 대해 더 나아가 추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 자신의 정신 밖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증명 되어야 합니다.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한 것이죠.

보시다시피, 만약 그러한 증거들을 얻을 수 없다면, 당신이 가진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의견과 믿음일 뿐입니다. 데이비드 흄이 회의론자가 되면서, 그는 신체에 대한 지식, 타인의 마음에 대한 지식, 신에 대한 지식, 심지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흄은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뿐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신의 존재를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가 생각하는 전부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로크 말이죠, 네, 이 운동 전체의 시작이었죠.

그러면, 하나 첫 번째 열 166에 대한 또 다른 예비 관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선천적인 지식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플라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선천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감각을 통해 얻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도 감각을 통해 얻어집니다. 감각적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 자신의 성찰을 통해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 더 복잡한 아이디어로 발전하며,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명제를 형성하고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감각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로크가 선천적 지식이 아닌 감각 경험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신께 우리가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감각에 의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가 우리에게 정신을 주신 창조주께 호소하여 우리가 정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로크는 우리에게 감각을 주신 신께 호소하여 우리가 감각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로크의 경험주의에 내재된 가정이 감각의 신뢰성이라면, 적어도 그는 그에 대한 신학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건 순전히 서론적인 설명입니다. 로크는 계몽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로, 그가 이 책에서 한 일은 버클리가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흠이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네.

음, 데카르트가 자신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저는 세계 관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존재합니다.

생각하는 존재.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내가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데카르트의 표현을 기억하세요. 인종은 생각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종은 실체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물리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 하지만 실체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실체적 지위, 즉 정신의 실체, 영혼의 실체라는 개념입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이 그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했다 . 로크는 데카르트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는 생각하는 존재라면 반드시 생각하는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흠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왜? 글썄,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지각의 덩어리라는 것뿐입니다. 내가 의식하는, 서로 연관된 관념들의 집합체죠. 그러니까 경험주의자라면, 내가 마음에 대해 아는 것은 내가 지각의 덩어리라는 것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그런 인식의 묶음을 가진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신은 단정짓고 그게 무엇인지 말하겠죠. 하지만 결국 당신은 모른다고 고백하는 꼴이 될 겁니다.

훙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보기에 대안은 독단주의와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자는 그러한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 나는 모르고 , 어떻게 알아내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 이해되시나요? 훙에게 있어서 이것은 다른 마음들, 몸들, 그리고 신과 마찬가지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훙은 어떤 형이상학적 믿음, 혹은 어떤 형이상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로크는 그를 함정에 빠뜨렸죠. 자, 그럼 그의 관념론을 한번 살펴볼까요? 관념론을 한번 살펴보자면,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잠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

아이디어와 지식의 차이점에 주목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는 지식이란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모든 인간은 죽을 운명이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판단을 내리고 명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은 주어-술어 형식을 가진 명제와 판단으로 구성됩니다. 주어와 술어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념 1과 개념 2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개념. 네, 일반적인 개념이죠. 알겠습니다.

죽음이라는 개념. 삶에는 어떤 우연적인 속성이 있다는 개념이죠. 질적인 개념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지식을 갖게 됩니다. 지식이란 자신의 관념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는 관념론에서 출발 해야 합니다 .

우리는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천적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둘째로, 모든 관념은 감각 에서 비롯됩니다 . 그는 긴 부분을 할애하여, 그리고 우리 선집에도 상당 부분 실려 있는데, 거기서 그는 선천적 관념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칩니다. 플라톤의 선천적 관념론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데카르트의 사상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명확하고 분명한 관념들을 강조합니다. 로크가 이 중 어느 것을 언급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말 역접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이요. 잠깐, 그 부분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 특히 15세기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플라톤 철학이 부활했습니다. 플라톤주의는 오랫동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력 에 가려져 있었는데 , 특히 피렌체 아카데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피치노라는 인물은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영국 르네상스에 미친 가장 큰 영향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언급됩니다. 영국에서는 15세기에 존 콜렛 같은 인물이 플라톤주의를 종교와 교육에 적용했고, 토머스 모어와 스펜서 같은 인물들은 정치에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르네상스 시대에 플라톤주의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캠브리지 플라톤주의는 17세기에 르네상스 부흥 운동의 계승자였습니다. 이 운동의 주요 인물은 1688년에 사망한 리처드 커드워스라는 사람이었는데, 보시다시피 그는 존 로크보다 젊은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주로 성공회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그들이 매우 싫어했던 다른 두 가지 대안에 대한 반대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는 토마스 홉스의 기계론적 자연관, 그리고 데카르트의 물리적 세계관에서 나타나는 인간 본성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관점이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기계론적 과학에 반대했다. 이는 관념론자였던 플라톤주의자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며, 이들의 플라톤주의는 발산 설을 포함하고 있었기에 어떤 면에서는 신플라톤주의에 더 가까웠다.

이는 물질이 실재하며 실질적인 인과력을 가진다는 견해를 거부한 관념론적 형이상학이었다. 따라서 감각기관에 대한 인과적 자극이 관념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거부하고 선천적 관념론으로 회귀했다.

유물론, 나아가 홉스에 반대하여, 청교도들의 칼뱅주의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칼뱅주의가 인간 본성을 경시하고 단지 종파적인 종교 분쟁만을 조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선천적인 관념 덕분에 이성이 힘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이라는 원칙이 여전히 유효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성 은 신의 존재를, 우리의 도덕적 책임을 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신학적 정통성에 대한 온갖 논쟁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과 신에 대한 묵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점에서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가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선천적 지식, 선천적 도덕 지식. 플라톤적 이상은 선에 대한 관조적인 사랑, 즉 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청교도적 배경을 가진 존 로크가 선천적인 관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는 지났다 고요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에요. 아니요, 10분 더 남았어요. 좋아요.

존 로크는 선천적 관념에 반대합니다. 자, 그럼 그는 어떻게 주장할까요? 그의 주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방식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그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지식이 선천적이라면, 즉 관념이 선천적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스 툴렌스(modus tollens)에 따르면, 보편적인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념은 선천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물론 그는 정확히 그런 형태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관념이 선천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보편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합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설령 그것들이 보편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선천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입니다. 왜냐하면 보편성은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통적인 경험적 요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는 보편적인 관념이 없다는 주장을 어떻게 정당화할까요? 우선, 선천적이라고 여겨지는 관념들, 즉 신에 대한 관념과 도덕적 관념은 어린이와 지적 장애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지적 장애인에게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사람들은 그러한 개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정신적 발달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는 '개념이 선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연구합니다. 선천적이라는 것은 개념이 이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이해 속에 있다는 것은 곧 이해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단순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게 한 가지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다양성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대항해 시대, 즉 16세기를 기억하시나요? 문화적 다양성은 윤리, 특히 신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중요한 관념들이 선천적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168페이지에는 그가 청교도적 배경에서 배운 방식으로 신의 관념을, 그 모호함과 다양성을 모두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68페이지 맨 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관념, 즉 신의 관념은 모든 지식의 부분에서 추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범한 지혜와 능력의 가시적인 표징들이 창조된 모든 작품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지하게 숙고하려는 이성적인 피조물이라면 신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로마서 1장을 단순히 의역한 것입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은 분명히 드러나 이해할 수 있지만,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로마서 1장을 의역한 것일 뿐, 선천적인 관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신성 감각, 즉 모호하고 정의할 수 없는 신성 감각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종교의 씨앗, 즉 종교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존 로크가 이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것, 즉 창조된 사물에 대한 성찰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신성 감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천적인 관념은 없다는 말인데, 그는 감각을 통해 관념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하는데, 제가 그것들을 나열해 놓을 테니 다음 시간에 읽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의식, 즉 태어날 때의 마음은 백지 상태, 마치 백지 한 장, 즉 타블라 라사(tabula rasa)와 같다는 주장입니다. 경험이 그 위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타블라 라사라는 개념은 스토아 학파,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경험주의 전통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가 이미 지적했듯이 관념은 기껏해야 정신적 표상일 뿐입니다. 그의 이론은 표상론적 인식론으로, 우리의 관념은 외부 사물의 속성과 사물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 관념과 복합 관념을 구분합니다.

간단한 아이디어는 한 번에 하나의 속성에 관한 것이고, 복잡한 아이디어는 여러 속성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아이디어들이죠. 예를 들어 저를 보시면 파란 셔츠를 입고 계시죠. 파란색이라는 단어 자체는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파란색 셔츠라는 이미지는 복잡한 아이디어이고, 제 전체 모습을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자,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단순한 개념은 앞서 말했듯이 원자론적인 개념, 즉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위입니다. 우리는 내적 감각과 외적 감각 모두에서 개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오감에 대해 알고 계시죠.

내면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생각들을 되돌아볼 수 있고, 마음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푸른빛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소망하고, 믿는 것과 같은 제 정신적 행위들, 데카르트가 그의 '코기토'에 포함시킨 다양한 활동들을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 감각과 외적 감각이죠. 단순한 개념의 특징은 명확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나요? 명확하고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들은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직관적인 것도 아니고, 명확하고 뚜렷한 것도 아닙니다.

관념은 오직 한 가지 감각에서만 비롯될 수도 있고, 여러 감각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관념은 우리가 다양한 감각을 통해 얻는 관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관념들 중에서, 우리는 일차적 속성에 대한 관념과 이차적 속성에 대한 관념을 구분 해야 합니다. 그는 178쪽부터 181쪽까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차적 속성은 단순히 우리의 다양한 감각 기관과 관련된 속성입니다. 냄새, 맛, 색깔, 소리, 질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들은 우리 감각 기관의 작동 방식 때문에 나타나는 속성들입니다.

이것들은 생산됩니다 . 우리에게는 존재하지만 객관적 실체는 없다.  
물리적인 사물을 표현하는 정신적인 방법들이 있다. 물리적인 사물들은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뉴턴 역학에서 물질의 기본 속성은 크기, 모양, 무게, 밀도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속성을 가진 물질은 인과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이차적인 속성을 가진 감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가 앞으로 연구할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설명된  
관념론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의 지식과 신념을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